

재일코리안 금융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민단계와 총련계 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영언** 최석신***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양 조직의 비교 |
| II. 민단계 금융업의 창업과 성장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총련계 금융업의 창업과 성쇠 | |

| 논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두 영리조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밝혀진 재일코리안 민단계와 총련계 양 조직 민족은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은행의 전개과정은 1950년대 초반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산재한 민족기반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은행의 설립경향은 남북대립 성향이 재일코리안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은이 약간 먼저 설립되어 오사카, 도쿄, 효고, 아이치, 교토 등 대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상은은 주로 일본 대도시, 조은은 조직원 상호간 강한 민족 연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도시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민족은행의 규모별 특징은 출자금을 제외한 예금이나 대출금, 조합원 수에서 총련계 조은이 민단계 상은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그 이유는 총련계 조은이 먼저 설립되어 동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민족의 회원자격 부여와 총련 조직의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양 조직의 경영조직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련계는 재일동포의 생활권 및 기업권확립 운동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특수성을 보이는 반면, 민단계는 개인중심의 조합원간 상호부조와 도전정신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민족은행은 설립과정에서부터 민단계와 총련계의 대립과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초기 민족금융기관의 성장발전과 민족기업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민족기업이 민족차별에 따른 일본금융기관의 대출 제한으로 동종의 민족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은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성장세를 지속하다 1990년대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내 반복분위기의 확산에 따른 일본사회의 우경화, 글로벌 외환위기와 경제 불황, 민족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배임 등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 주제어: 재일코리안, 민족은행, 민단계, 총련계, 민족기업

I.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과 더불어 생겨난 약 60만 명의 재일코리안(재일교포를 지칭하는 학술 명칭)은 일본에서의 각종 차별로 인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재일코리안 영세 자영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 국내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민단과 총련이라는 두 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총련계 동화신용조합(현 조선은행 도쿄신용조합)이 1952년에 설립되면서 재일코리안 사회도 상호 협력적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 좌우대립이 격화되면서 민단계를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이 출범하였고 점차 재일코리안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단계와 총련계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재일민단계와 총련계에 의한 민족은행 설립은 1950년대 초기에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소규모적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전개되어 갔다. 양 은행은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창업하여 재일코리안의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제도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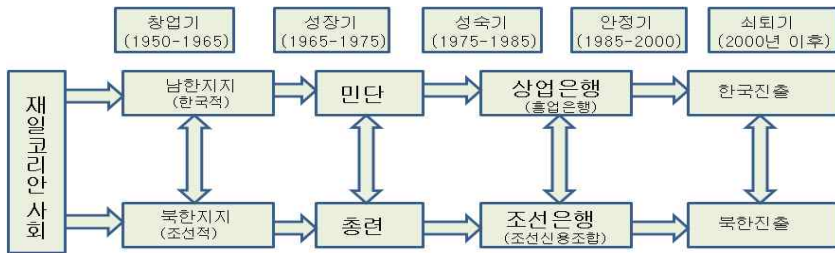
재일코리안 금융업에 관한 기존연구는 양경희(2009)나 한재향(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양경희(2009)의 연구는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신용조합설립과 모국진출, 신한은행의 설립과정 등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한국사회 및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재향의 연구는 재일코리안 조은과 상은의 설립과정과 재일코리안의 경제활동 및 기능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韓載香 2007).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민족금융기관에 대한 연구는 안현효외(1999)와 정연선외(2006)의 캘리포니아 주의 민족은행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민족은행의 특징에 대하여 고객이나 시장이 특정화되어 있는 틈새은행으로서 포지셔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연구결과 민족은행들은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의 대출로 한인공동체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틈새은행경영의 효율성과 민족 관계성에 의존한 1990년대 민족은행의 급성장, 민족은행간 과잉경쟁으로 새로운 시장개척(히스패닉 시장 공략, 고도기술 신산업투자, 영업지역의 확대, 합병에 의한 자산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민족은행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두 영리조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그림 1>).

1950년대 초 재일코리안 사회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민단계와 총련계로 양분된다. 195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민족은행의 설립은 1960년대 일본 전국에서 본격적인 전개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1970년대의 소강기를 거쳐 1980대년 초반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족은행의 창업도 각 지역이나 현의 지지세력 및 조직규모에 따라 달리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불황 등으로 인해 민족금융기관도 정체성의 약화에 따른 연대

성이 약화되어, 기존의 폐쇄적인 틈새은행으로서의 메리트마저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림 1>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성장과정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유의하면서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을 민단계와 총련계로 구분하여 정치적 요인으로서 민족은행의 창업과 성장배경, 경제적 요인으로서 민족은행 성장과정상의 전략적 오류와 쇠퇴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창업, 성장 과정, 민족적 연대와 공동체 내의 상호관계, 민족은행의 파탄과 통폐합 등 일련의 과정을 규명한다.

II. 민단계 금융업의 창업과 성장

1. 오사카흥업은행의 창업과 성장

1953년에 오사카상업은행, 아이치상업은행이 설립되었고 계속해서 1960년대에 걸쳐 일본 각지에 신용조합이 설립되었다.²⁾ 총련계와 마찬가지로

1) 이 그림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필자의 추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2013년 4월 20일).

2) 『民団新聞』 : <http://www.mindan.org/enkaku/rekishi/zainiti.htm>. (2013년 5월 1일 검색)

민단계 기업도 일본인 기업에 비해 용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단계 금융기관의 필요성은 시급했다(韓載香 2010). 다만 민단계나 총련계 기업을 불문하고 재일코리안 기업 전반적인 거래경향으로서 제조업과 토목업은 일본의 일반금융기관, 음식업, 부동산업, 고철업 등은 민족계 금융기관, 그리고 파칭코산업은 계열 구분 없이 양쪽 은행과의 거래가 일반적이었다(韓載香 2010).

이들 민족계 금융기관 중에서도 1955년에 설립된 오사카흥업은행은 창업 이래 가장 독특한 고객서비스를 전개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급성장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면 오사카 동부의 야오(八尾)지점에서는 고객을 위한 건강기구를 설치하거나 파티용 정원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오사카의 우메다, 난바 등 번화가 주변에서는 오후 7시까지 영업하는 출장소를 개설하는 등 보수적이라 여겨지던 금융업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였다(『日本經濟新聞』, 1989年 1月 9日). 1990년 10월에는 처음으로 예금총액이 1조엔을 돌파하여 오키나와은행, 시미즈은행 등 도쿄주식시장 1부 상장은행의 평균예금총액을 초과하였다(『日本經濟新聞』, 1991年 7月 23日).

2. 간사이 흥업은행 시대

민족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창업, 성장과정에 앞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업주체인 재일코리안 기업의 기업가 정신(Ethnic Entrepreneurship)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창업자들이 어떤 경영철학과 사회적 책임의식(CSR)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민족금융기관의 성장에 중요한 설명변수이기 때문이다. 종전 일본에 정착한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일본사회로부터 가혹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재계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은 위기감에 따른 풍부한 발상력, 불리한 기업조건을 극복하려는 반응문화이론(Reactive Cultural Theory)이라는 기업문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Waldinger 1989). 즉 거주국 일본에서의 사회적 억압과 반발에 의해 기업에 의한 성취동기를 강화시키는 기업가 정신 행동이론을 의미한다. 여

기에다 제일코리안 기업가의 해방 전 금의환향이라는 기업동기가 해방 후 모국투자의 목표로 전환되어 민족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河明生 1996).

1993년에는 고베시, 나라 현, 시가 현, 와카야마 현의 각 상업은행들이 오사카흥업은행과 합병하여 간사이흥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은행설립에 대해 민관식(1994)은 “민단조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합병 전 오사카흥업은행은 당시 일본에서 영업 중인 393개 신용조합 중 자금규모 면에서 제1위였다(민관식 1994).

오사카흥업은행의 이사장(이승재)은 민단계 신용조합의 상부기관인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의 회장이었다. 그는 오사카흥업은행을 1955년에 창업한 이회건 회장의 아들로 민단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부자(父子)가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신용조합의 대출액 한도는 한건 당 자기자본의 20% 이하로 제한되었던바 합병에 의해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용자가 가능해졌다(『日本經濟新聞』, 1993년 2월 24일). 이들 두 은행의 합병 후 예금총액은 1조 2천억 엔을 초과하여 일본의 중견 지방은행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되었다(『日經金融新聞』, 1993년 7월 5일).

이러한 오사카흥업은행의 급성장은 오사카에서 제일민단 기업과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990년대까지 민단계 기업이 관련된 산업에서 계속 성장을 이룬 분야는 파칭코산업, 음식업, 부동산업, 공사현장의 인력 파견업 등 서비스업 분야였다.

예를 들면 당시 오사카 부 내 약 1,100개의 파칭코점포의 약60%는 제일민단 소속기업이 경영하고 있었다고 오사카흥업은행은 분석했다. 이들 은행들은 제일민단계 파칭코점포의 대부분을 거래처로 삼아 설비자금을 융자하고 있었다. 또한 오사카 남쪽의 변화가나 니시나리 ‘아이린’지구의 노동자용 간이숙박시설 등에도 오사카흥업은행의 융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經濟新聞』, 1991년 7월 23일).

심지어 이들 민족은행이 제일코리안의 대표적 축제인 ‘시텐노지왔소(四天王寺ワッソ)’ 축제를 후원한 것도 흥미롭다.³⁾ 이 행사는 백제 사절단이

3)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일코리안이 주최하는 대규모 축제임.

고대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재현한 축제이다. 제1회 축제는 1990년에 개최되었던바 이것은 오사카홍업은행이 현대 한일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담당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사카 홍업은행은 신한은행의 ‘모기업’이다. 신한은행은 1982년 한국의 6번째 시중은행으로 설립되어 불과 5년 만에 49개 지점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시중은행 중에서 경상이익 제1위의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신한은행의 오사카지점 이사를 맡은 이승재는 야마토은행(현 리소나은행)과 산와은행(현 도쿄미즈비시 UFJ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은행의 경영이념, 장기계획의 수립, 컴퓨터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지점에서 창구업무와 후방사무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의 미국식 은행시스템을 도입하였다(『日本經濟新聞』, 1983年 8月 25日).⁴⁾

3. 버블경제 시대의 도래

그러나 오사카홍업은행의 이러한 전성기적 성장발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버블경제붕괴에 따른 일본경제의 불황은 재일민단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日本經濟新聞』, 2011年 8月 25日). 지방 상업은행을 합병해 간사이홍업은행으로 더 큰 성장을 지향한지 약 10년 후인 2002년, 간사이홍업은행은 긴끼산업신용조합으로부터 사업을 양도받게 되었다. 긴끼산업신용조합은 2001년 오사카상업은행, 2002년에는 교토상업은행의 사업을 양도받은 바 있다.

오사카상업은행은 1998년, 교토상업은행은 2001년에 각각 경영과단이 발생했다. 긴끼산업신용조합은 오사카 부, 교토 부, 효고 현, 시가 현, 와카야마 현, 나라 현, 기후 현, 나가사키 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 회장은 MK택시 창업자인 아오키 사다오(青木貞男)였다.

긴끼산업신용조합은 2005년 3월말 동 신용조합의 MK그룹대상용자가 82억 엔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조직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도쿄미즈비시(東京三菱)은행이나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까지

4) “經常利益とは、營業利益に營業外收益を加え、これから營業外費用を控除した後の利益を指す。”

파칭코산업이나 야끼니쿠점포에 용자를 시작한 가운데 긴끼산업신용조합의 높은 예대율(예금 대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아오키 회장의 발언은 제일코리안 기업대상용자가 이제 더 이상 제일코리안 금융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日經金融新聞』, 2005年 4月 19日).

2011년 말 현재 남아있는 기타 상업신용조합은 아스카신용조합, 중앙상업은행신용조합, 아스나로신용조합, 신용조합아이치상업은행, 신용조합오카야마상업은행, 신용조합히로시마상업은행, 큐슈행은(幸銀)신용조합 등이다. 상업신용조합은 전성기 때 총 38개 조직이 영업 중이었지만 현재는 10개 이하로 감소되었다. 2009년 한신협은 ‘이월결손의 증가, 자기자본비율의 감소, 만성적인 무배당’등의 문제를 모든 조합들이 안고 있어 생존 전략으로서 타 기관과의 합병·통합은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⁵⁾ 민단계 금융기관은 여전히 버블경제 이후 경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민단계 기업의 한국투자와 신한은행의 발족

민단계 기업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모국인 한국과의 정치 경제적 상관성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11월 서울에서 ‘재일교포생산 본국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한국과 재일민단계 상공인과의 교류 기운이 높아졌다(永野慎一郎 2010). 1959년에는 재일민단계상공인을 총망라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재일한국인경제연합회(한경연)’가 결성되었다.

1960년대 초 재일민단계 기업가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마다 지참한 금액은 공식적 통계에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永野慎一郎 2010). 민단계상공인들의 공식 조직인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한상련)’가 결성되고(1962) 한국정부로부터 ‘유일한 제일코리안 경제단체’로서 인정받아 민단의 산하단체로 승인되었다. 결국 재일한국인경제연합회를 통합하여(1963) 거대한 경제인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5) 東洋經濟日報: http://www.toyo-keizai.co.jp/news/society/2009/post_2588.php.
(2012년 8월 25일 검색)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성사됨에 따라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민단계 기업에 의한 한국투자의 길도 열렸다.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구로공단이 한국최초의 수출산업공업단지였으나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과 재일코리안 기업도 다수 진출했다. 1967년 4월 동 공단 준공단계에서 전체 기업 수는 한국기업이 11개사, 외국기업이 2개사, 그리고 민단계 기업이 18개사였다(永野愼一郎 2010). 그 후 마산수출자유지역, 반월공단 등 지에도 민단계 기업은 계속 진출하여 결국 민단은 서울에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를 설립하였다(1974).

당시 한국에 진출한 민단계 기업은 한국정부로부터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사카한국상공회가 1973년에 ‘교민(동포)은행 설립’을 결의하고 동 상공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 전국 민단상공회에 호소한 결과 당시 약 50억 엔에 달하는 설립자금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日本經濟新聞』, 1989年 8月 30日).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1977년에 설립된 것이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였다.

1982년에는 한국정부가 금융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일코리안 민단에게 민간은행 설립을 허가하여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는 신한은행으로 발전하였다(『日本經濟新聞』, 1983年 8月 25日). 1980년대에 주목할 만한 일은 1988년에 이루어진 서울올림픽에 대한 재일코리안 민단계 상공인들의 막대한 자금원조였다. 또한 재일코리안 민단계 기업에 의한 한국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민단계 기업의 한국진출(『日本經濟新聞』, 2011年 3月 3日) 6)

회사명	창업 연도	주요 사업내용
방립방직 (邦林紡績)	1963년	민단의 거물 기업가인 서갑호(坂本榮一)씨가 창업. 일본에서는 사카모토방직(阪本紡績)으로 알려져 있음. 나중에 한국에서 철수. 주일한국대사관 부지/건물 기부.

6) 민단신문 :

http://www.mindan.org/shinbun/news_view.php?category=1&page=69. (2012년 4월 6일 검색); 在日本大韓國民団:

<http://www.mindan.org/front/newsDetail.php?category=1&newsid=12222>. (2013년 1월 1일 검색)

한일합섬 그룹	1956년	김한수씨 창업. 오사카에서 양복점 경영, 1944년 귀국. 1948년 부산 국제시장 직물도매, 1956년 경남모직 설립
코오롱 그룹	1962년	이원만씨 창업. 일본회사와의 합작으로 한국나이론 설립. 나이론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전환. 1965년 한국최초 수출산업공단 설립. 1972년 구로공단 가발공장 제안, 가발산업은 1970년대 초 수출 주력상품.
한국 롯데그룹	1967년	신격호(重光竹雄)씨 창업. 휴잉검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 제과, 소매, 호텔, 오락을 비롯한 석유화학, 건설 사업에도 진출하여 다각적 경영. 일본과 한국에서 재벌로 성장.
대한합성화 학주식회사	1967년	송재우씨 창업. 1939년 오사카에서 야스모토화학공업소 설립 합성수지제조업. 1956년 고향 제주도에 초등학교 교사신축, 회관건설, 전기가설, 도로포장. 1967년 대한합성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성수지 및 포르말린 제조. 일본유기화학과의 합병으로 기술 및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 일본수출.
소프트뱅크 코리아	1981년	손정의씨 창업. 1991년 포스코와 소프트뱅크 코리아 설립. IT관련 기업 투자. IT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 유통 등을 통해 한국 내 IT산업 발전기여.
신한은행	1982년	1989년 3월 주식공개. 제일코리안 100% 출자 은행. 2003년 주식상장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 동화은행, 제주은행을 편입하고 2004년 조흥은행을 흡수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현재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증권업무 분야에도 진출하여 한국최대 시중은행 중의 하나로 성장.
기아 자동차	1944년	창업자 김철호씨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 체류. 1997년에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었지만, 2010년 판매대수는 현대·기아그룹 합계 세계 제5위.

1990년대 이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의 지원 및 대북관계구축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2000년에는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와 ‘한상연’이 화합하면서 민단체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경제의 시찰을 주도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북한의 용천에서 발생한 열차폭파사고, 2005년에는 탈북자지원민단센터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였다. 2011년 말 한상연 산하의 개인·법인회원을 합하면 기업가 수는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Ⅲ. 총련계 금융업의 창업과 성쇠

1. 신용조합의 창업 및 성장배경

총련계 상공업조직으로서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가 있거니와 1946년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본부’가 그 전신이다. 그 후 1952년에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이후 ‘상공연’)로 개편하여 총련에 가맹하였다(1959). 현재 ‘상공연’은 산하단체에 46개 도도부현상공회, 151개 지역상공회, 82개 경리실을 관장하며 기관지로서 ‘조선상공신문’을 발행하고 있다.⁷⁾

주요 업무로서 경리세무상담이라는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세금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란 일본정부가 총련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탈세혐의에 관한 조사요청 시 협상을 의미한다. 총련 당국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를 시정하여 세금문제를 공정히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⁸⁾

상공연과 총련의 관계에서 상공연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1959년에 상공연이 총련계 금융기관의 연합체인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에 가입하여 총련 산하의 기업과 금융의 연합체로 재탄생하였다(吳圭祥 1992).

1961년에는 총련과 북한과의 무역이 개시되었다. 총련의 북송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술자가 북한에 귀환하였으며,⁹⁾ 같은 해 총련의 지도하에 경제경영교육을 실시하는 경제학원이 일본 각지에 설립되었다. 당시 총련들 사이에서는 ‘경제학원에 다녀왔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학원을 통해 기업가에 대한 총련의 사상교육이 철저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吳圭祥 1992).

7)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http://www.chongryon.com/j/cr/index10.html>. (2013년 5월 16일 검색)

8)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http://www.chongryon.com/j/cr/index10.html>. (2013년 5월 16일 검색)

9) 朝鮮新報: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4/01/0401j0226-00001.html>. (2013년 4월 16일 검색)

1970년대는 총련의 직업구성 가운데 상공업자의 비율이 급증한 시기였으나 그 배경은 동 시기의 북송사업 때문에 재일총련계 일용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통계상의 변화’에 불과했다(韓載香 2010). 북한과의 왕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총련과 북한지도층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1973년 11월에는 평양에서 재일조선상공인생산품전시회가 개최되어 전시상품 출품 수는 9,250개 품목에 달했다(永野愼一郎 2010). 또한 총련계 상공인이 제조공장 설비를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였다(吳圭祥 1992).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과 총련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1984년 김일성은 재일조선상공회 활동가대표단과 회견한 이후 연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1986년에는 ‘조선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후에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로 명칭 변경)가 설립되어 총련계 기업가뿐 아니라 일본 경제계와 북한과의 ‘합변, 합작, 가공무역 등 경제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거래 확대’가 추진되었다.

그러한 경제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급성장을 이룬 한국보다 경제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재일총련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당국은 재일총련계 상공인들이 설립한 공장에 “애국이라는 명칭을 붙여 ‘충성비’를 세우고 업적을 오랫동안 기렸으며 노동영웅칭호를 비롯한 국가수훈과 표창이라는 명예를 주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재일 총련을 ‘귀포(歸胞)’라 불렀으며 그들은 멸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金元祚 1984). 북한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재일총련계 상공인을 일종의 ‘돈줄’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총련과 북한의 합변기업의 통계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합변회사 41개사, 합작회사 35개사가 설립되어 순계약금액은 1억 4,816만 달러에 달했다. 대표적인 합변기업은 <표 2>와 같다.

<표 2> 총련과 북한의 합변기업 및 유관조직/제도10)

	설립 연도	주요사업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변법	198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합변법' 채택 실시
합변사업 연구회	1986년 6월	북한과의 합변사업 추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합변사업연구회' 오사카에서 발족
합변회사 국제전시회	1987년 3월	모스크바에서 합변총회사 주최 북한경공업제품전시회 개최, 북한 간부 및 재일총련 기업가 12명 참가
재일총련 기업	1987년 9월	제3회 총련합변경제대표단과 6개(야마구치, 군마, 나라, 니가타, 오사카, 사이타마 등) 북한방문단 합변사업을 위해 북한방문
만장 합변회사	1987년 4월	북한 만수무역회사와 재일동포 조창산업주식회사와의 합변회사. 조선 약초류 생산과 판매. 1987년 11월 제품 일본출하.
조국과 합변추진을 위한 동포상공인 모임	1988년 2월	총련 중앙 합변사업추진위원회 임원과 동포상공인 130명 참가 합변생산품 전시회 개최
평양피아노 합변회사	1988년 4월	재일코리안 기업가 2세 유한회사 PACO와 북한 문화예술부조선악기총회사가 설립한 피아노 생산판매 합변회사. 1987년 현지조사, 1988년 설립. 1989년 조업식을 시작으로 1990년 파코브랜드 피아노 판매개시. 자동연주기능을 갖춘 피아노(1992), 그랜드 피아노 생산(1996)을 각각 개시함
모란봉 합변회사	1988년 9월	합변회사의 모델, 동사 산하공장의 동대원 피복공장(창업 1988년 9월 4일)이 양복, 점퍼, 와이셔츠 등 제조함. 구소련과 일본에 수출
조선 합변은행	1989년 4월	조선국제합변총회사와 총련합변사업추진위원회가 1986년 6월부터 준비. 초대 총재로 총련합변사업추진위원회 전인식 회장 취임. 외국환은행으로 외국환업무와 일반은행업무 개시. 1989년 12월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은 6개 은행 7개 점포(도쿄, 런던, 쿠바, 홍콩, 북경, 오스트리아 등)
국제화학 합변회사	1991년 4월	함흥 공장이 모나즈 광석으로부터 토륨, 우라늄, 희토류 등을 분리 추출함. 희토류제품생산 판매회사. 3만평 부지의 최초 화학합변회사

10) NORTH KOREA TODAY:

http://www.pyongyangology.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26&Itemid=81. (2013년 4월 15일 검색) 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정리 작성함.

합병회사	1986년 2월부터 5년간 총 85개사 합병계약, 39개사 조업. 처음에는 음식업이나 찻집 등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생산합병기업으로 확대발전, 총 투자금 약 100억 엔에 달함
------	--

그러나 이러한 합병기업의 경영은 모두 적자상태로 손실은 전부 총련계 상공인이 감수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기 북한제 피아노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적체되어 경쟁력이 없는 상품으로 혹평 받았다(李英和 1994).

1990년대 초기부터 1995년에는 총련 결성 40주년을 기념하여 30대의 젊은 총련계 상공인을 중심으로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가 설립되었다. 청상회의 설립에 이어 각 도도부현이나 지역에도 지방청상회가 설립되었다. 민족문화 계몽사업이나 조선학교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교복을 선물하는 등 민족교육을 지원하는 운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2. 반복감정, 버블붕괴 및 도덕적 해이

1990년 이후에는 총련 자체 세력의 약화와 총련계 상공인 조직의 쇠퇴가 명확해진 시기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조선협)의 파탄이 잇따랐다. 당시 일본 금융계 전체가 도태와 선별이라는 ‘추운 겨울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다. 1997년에는 조선은행오사카신용조합, 1999년에는 조선은행나가노신용조합이 파탄됨에 따라 2000년까지 14개 조선은행신용조합이 잇달아 도산하였다.

물론 민단계 금융기관도 동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독 총련계 상공업 및 금융조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일본인납치문제에서 기인한다. 1997년경부터 대중매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온 이 문제는 고이즈미(小泉) 일본총리의 북한방문 시 김정일에 의한 납치문제 인정과 사죄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002). 이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결정적으로 악화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6년 조선오사카부상공회가 강제수사를 받았다. 일본인 납치는 1980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북한 공무원 신광수에 의한 하라 다다야키(原敕晷) 납치사건에 대한 혐의였다. 하라는 납치 당시, 오사카시내

의 중화요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요리점의 경영자인 이삼준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동 상공회 이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신광수의 협력자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2007년 2월에는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총련 효고 현 본부와 효고 현 상공회 등이 수사를 받았고 소득세법위반으로 총련 핫카이도 본부와 산하 단체가 강제수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교토부상공회와 산탄(三丹)상공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 말에는 도쿄 상공연단체를 비롯한 도쿄도상공회, 신주쿠상공회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총련 단체에 대한 계속된 일본정부의 강제수사 결과를 보면 “총련상공조직은 북한으로의 송금원이며, 북한의 대일공작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혐의를 일본의 공안기관이 공유하게 되었다.

총련 자체도 2002년 이후,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총련은 비자나 여권의 발행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총련관련 시설 소유자의 대부분이 영리조직인 총련 관련 기업이며 따라서 고정자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쿄도가 관련시설에 과세를 단행하게 되었다(2003). 기타 몇 개 지방자치단체도 도쿄도의 관례에 따랐다. 이에 대해 총련은 도쿄도를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벌였지만 2009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결정되었다.

2006년에는 총무성이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과세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각 도도부현에 지시하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총련계 상공업조직에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계속된 장기 경제 불황으로 상공회의 활동도 불황에 빠졌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와 일부 조선은행의 파탄에 의해 많은 동포들과 상공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아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총련은 홈페이지에 쓰고 있다. 일본에서 총련 상공회의 경영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조선은행건기가 모두 문제를 수용한 것으로 해결되는 않았다. 1996년 말부터 1997년에 걸쳐 수용기관이었던 조선은행건기

자체가 경영난에 빠지고 만 것이다. 조선은행긴끼뿐만 아니라 1997년 5월, 조선은행오사카지점의 경영난 이후 2년간 16개의 총련계 금융기관이 경영파탄을 경험하게 되었다. “버블경기 시 유치한 거액의 고금리에금을 부동산투자로 돌린다.”는 용자방침은 각 조선은행에 공통된 것이었다. 그 결과 거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한 것이다(『日本經濟新聞』, 2001年 11月 8日). 16개 조선은행에 대한 경영부도 처리에 투입된 일본의 공적자금은 1조 3천억 엔에 달했다(『日本經濟新聞』, 2007年 6月 18日).

2001년 12월에는 조선은행긴끼의 구 경영진들이 배임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은 1997년에 경영파탄이 발생한 조선은행오사카와 1999년에 경영파탄이 된 조선은행아이치의 불량채권 변제를 위해, 조선은행긴끼로부터 가공구좌나 차명 구좌를 통해 부도난 조선은행에 약 10억 엔을 용자한 사건이었다(『日本經濟新聞』, 2001年 12月 6日). 당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은행에 용자를 의도적으로 수행했다고 고소당한 구 경영진 중에는 조선신용은행의 전 회장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명의 구 경영진에게 10억 4천만 엔의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4년 4월이었다. 그리고 1993년에 38개사였던 조선은행계 신용조합은 2002년에 7개사로 정리되었다.

조선은행의 계속된 부도는 총련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조선은행은 총련의 유력한 자금공급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총련계 기업으로부터의 현금도 감소했다. 그러한 자금은 북한으로의 ‘상납금’이 되어왔다고 총련계 기업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나 핵미사일문제 등으로 일본인뿐 아니라 재일코리안들로부터 총련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총련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어 북한으로의 귀국자나 그들 친족의 영향력도 계속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배경으로 총련은 자금기반까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日本經濟新聞』, 2007年 6月 18日). “자립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동포로부터 한층 신뢰받는 민족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분투하고 있다.”는 총련 홈페이지의 메시지가 그들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¹¹⁾

11)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http://www.chongryon.com/j/cr/index10.html>. (2013년 5

3. 금융업의 승계와 전망

두 조직의 기업의 승계문제는 민단계와 총련계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재일코리안1세는 물론 2세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승계문제는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에서는 2005년 시점에서 “동포법률·생활센터에서 진행된 상담 중 상속문제는 가장 많은 상담사례의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다.¹²⁾

우선 중요한 것은 일본법의 상속법 적용 여부이다. 이것은 피상속인이 한국과 관계가 깊으면 한국법, 북한과 관계가 깊으면 일본법이 적용되다는 논리이다(한국적인지 조선적인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¹³⁾ 상속분에 관해서는 양국에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이 서로 다르다. 한국법의 경우에는 자녀가 많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¹⁴⁾

총련계 재일코리안에게 일본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얼핏 무리한 적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관계가 깊은 기업인에게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들의 본국법인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¹⁵⁾이 재외국민에게는 현지국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정해져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¹⁶⁾ 다

월 16일 검색)

12) 朝鮮新報 :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9998>. (2013년 4월 18일 검색)

13)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9998>. (2013년 4월 18일 검색)

14) 在日本大韓民國民団: http://www.mindan.org/sidemenu/sm_seikatu_46.php. (2013년 5월 16일 검색)

15) 북한에서는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제정, 공포한 후 대외경제관련법을 정비하여 왔다. 북한은 이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재일동포들을 지원해 왔다. 대외관계법에는 북한 가공무역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기술수출입법, 개성공업지구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대외민사관계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무역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세관법, 출입국법, 토지임대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 외화관리법 등과 그에 따르는 규정, 시행규칙 등이 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2005).

16)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9998>. (2013년 4월 18일 검색)

만 민단계 기업에 관해서는 한국적 보유자로 한국과의 관계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한국의 국제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으로 상속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¹⁷⁾

글로벌화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재일코리안 기업의 상속문제는 재일코리안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매스컴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속된 경제 불황 탓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신용카드회사나 ‘소비자 금융회사’에 다중채무를 남긴 채 기업가가 사망하여 이러한 상담사례를 들고 방문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⁸⁾

IV. 양 조직의 비교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조선협)’는 총련계의 대표 금융기관이며 1952년 동화신용조합(현재 조선은행 도쿄신용조합)이 그 효시이다. 효고 현(1952), 교토 부(1954), 오사카 부(1955) 등 주요 도시에 총련계 금융기관이 설립된 이후 1990년에는 38개 조합에 176개 점포로 확대되었다. 1993년 민단계 대 총련계 금융기관의 세력구조를 살펴보면, ‘상업은행’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민단계는 35개사로 수신고가 25,610억 엔에 달했으며, ‘조선은행’의 명칭이 붙여진 총련계는 38개사로 총수신고가 23,611억 엔에 달했다.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총수신고를 비교해보면, 1960년대는 민단계가 우세하였고, 1970년대는 양쪽이 거의 동등하였으며, 1980년대는 다시 민단계가 우위였다(閔寬植 1994). 그러나 총련계 금융기관은 민단계의 은행과 막상막하의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은 1950년대 초반에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1960년

17)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10003>. (2013년 4월 20일 검색)

18)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10115>. (2013년 4월 25일 검색)

대 일본전국적으로 확대 전개되었다. 1950년 이후 민단계와 총련계의 지역별 연도별 민족은행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재일코리안의 지역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오사카부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쿄도 11.6%, 효고 현 10.5%, 아이치 현 8.4%, 교토 부 6.9%, 가나가와 현 4.6%, 후쿠오카 현 3.7%, 히로시마 현 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1950년대 초반부터 재일코리안 집거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오사카지역만 민단계 상업은행과 흥업은행 두 은행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민단계와 총련계 은행이 각각 1개씩 주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재일코리안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순으로 먼저 민단계열의 상은 39개, 총련계열의 금융기관인 조은이 38개 등 총 77개 조합의 민족은행이 각 지역에 설립되었다(韓載香 2007). 이러한 금융기관의 설립경향은 남북대립 성향이 재일코리안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전체적인 설립 경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은이 약간 먼저 설립되어 오사카, 도쿄, 효고, 아이치, 교토, 가나가와, 히로시마, 후쿠오카 순이며 대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양 기관의 특징으로 상은은 주로 일본 대도시, 조은은 조직원 상호간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도시에까지도 진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민단계와 총련계 금융기관 연도별 지역별 비교(1974년 기준)

민단계 상업은행(상은)		총련계 조선은행(조은)		재일코리안 지역별 인구비율(%)
조합명	설립연도	조합명	설립연도	
오사카상은	1953년	조은오사카	1955년	오사카 부(28.0)
도쿄상은	1954년	조은도쿄	1952년	도쿄도(11.6)
아이치상은	1954년	조은아이치	1953년	아이치 현(8.4)
교토상은	1954년	조은교토	1954년	교토 부(6.9)
오사카흥은	1955년	-	-	-
고베상은	1956년	조은효고	1952년	효고 현(10.5)
미에상은	1956년	조은미에	1960년	미에 현(1.2)
구마모토상은	1956년			구마모토 현(0.3)
후쿠오카상은	1958년	조은후쿠오카	1953년	후쿠오카 현(3.7)
히로시마상은	1961년	조은히로시마	1961년	히로시마 현(2.5)
요코하마상은	1962년	조은가나가와	1952년	가나가와 현(4.6)
오카야마상은	1962년	조은오카야마	1962년	오카야마 현(1.3)
야마구치상은	1963년	조은야마구치	1961년	야마구치 현(2.3)

사이타마상은	1963년	조은사이타마	1958년	사이타마 현(1.4)
치바상은	1963년	조은치바	1960년	치바 현(1.4)
시가상은	1963년	조은시가	1964년	시가 현(1.0)
와카야마상은	1963년	조은와카야마	1963년	와카야마 현(0.8)
나가사키상은	1963년	조은나가사키	1977년	나가사키 현(0.4)
기후상은	1965년	조은기후	1954년	기후 현(1.7)
시즈오카상은	1965년	조은시즈오카	1960년	시즈오카 현(1.3)
홋카이도상은	1965년	조은홋카이도	1965년	홋카이도현(1.2)
나라상은	1965년	조은나라	1964년	나라 현(0.9)
후쿠이상은	1965년	조은후쿠이	1963년	후쿠이 현(0.7)
미야기상은	1966년	조은미야기	1966년	미야기 현(0.6)
니이가타상은	1967년	조은니이가타	1964년	니이가타 현(0.4)
이시카와상은	1969년	조은이시카와	1969년	이시카와 현(0.5)
아오모리상은	1969년	조은아오모리	1968년	아오모리 현(0.3)
이와테상은	1969년	조은이와테	1969년	이와테 현(0.3)
아키타상은	1970년	조은아키타	1970년	아키타 현(0.2)
도야마상은	1971년	조은도야마	1970년	도야마 현(0.3)
시마네상은	1971년	조은시마네	1971년	시마네 현(0.2)
군마상은	1972년	조은군마	1963년	군마 현(0.4)
이바라키상은	1973년	조은이바라키	1953년	이바라키현(0.6)
나가노상은	1976년	조은나가노	1963년	나가노 현(0.8)
오이타상은	1977년	조은오이타	1958년	오이타 현(0.5)
도치기상은	1977년	조은도치기	1964년	도치기 현(0.3)
사가상은	1978년	조은사가	1977년	사가 현(0.2)
고치상은	1978년	-	-	고치 현(0.1)
후쿠시마상은	1982년	조은후쿠시마	1955년	후쿠시마 현(0.3)
-	-	조은에히메	1973년	에히메 현(0.3)
-	-	조은카가와	1983년	카가와 현(0.2)
합계	39개		38개	

다음은 제일코리안 금융기관의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민단계 상업은행과 총련계 조선은행의 예금, 대출금, 출자금,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韓載香 2007). 당시 제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제도적 특징이었던 신용조합은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협동조직에 의한 조합 형태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이었다. 1949년 당시 일본 법률로 규정된 신용조합협동제도는 1951년 ‘신용금고 시행법’의 공포로 ‘신용금고’로 개정되었고 1952년 최초 민족금융기관으로서 도쿄에 ‘동화신용조합’이 설립되었다.

상은과 조은의 규모별 특징을 비교해 보면 예금이나 대출금, 출자금 면에서는 민단계 상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합원 수에서는 총련계 조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일코리안 민족은행 모두가 일본

금융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고 총련계 조은이 먼저 설립되어 동일 민족이라는 점이 회원자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1957년 당시 총련은 북한으로부터 교육지원금으로서 총액 32억 엔이 송금되어 조선은행을 신설하고 교육기관의 정비 등 조직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총련은 예금의 이자로 조은을 신설하고 상은에 비해 강력한 조직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다.

이에 반해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약했던 민단계 상은은 1960년대 ‘한신협’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재일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에 나섰다. 이에 앞서 재일코리안 민단계 신용조합의 전국단체로서 1956년 ‘한신협’이 결성되었고 육성자금의 모금에 나섰다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1960년 12월 경 한국정부로부터 육성자금의 일부로 50만 달러가 송금되었고 한신협의 대표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원금의 운용을 맡게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가 한신협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1959년 ‘재일조선인 귀환 협정’이 북일 간에 체결됨으로서 북송운동의 본격화와 한국정부의 정권교체시기에 재일코리안 사회의 좌경화에 따른 총련의 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한신협을 중심으로 한 민단계 상업은행은 민단계 공동체내의 지원과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조은이 진출한 지역 및 진출예정지역에 설립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당시 재일코리안들은 일본계 조합이나 은행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민단계 상은이 없는 곳에서는 총련계 조은과의 거래를 선호하였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민단계와 총련계 은행들의 조합원 유치 경쟁으로 먼저 민단계에서도 상은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표 4> 민단계와 총련계 금융기관 규모(1973년 3월, 단위: 만 엔)

민단계 상업은행(상은)					총련계 조선은행(조은, 조신)				
조합명	예금	대출금	출자금	조합원수	조합명	예금	대출금	출자금	조합원수
오사카총은	111,559	98,294	2,278	29,267	조은오사카	80,775	70,647	1,635	32,182
오사카상은	90,549	76,731	2,017	23,425	조은도쿄	80,554	68,012	1,530	21,885

54 아태연구 제20권 제2호(2013)

도쿄상은	66,356	47,272	1,085	12,879	조은 효고	44,551	40,246	840	13,094
가나가와상은	23,357	18,368	535	4,719	교토조신	43,845	39,173	743	11,925
고베상은	23,036	17,860	488	6,496	조은아이치	43,754	39,067	658	12,263
교토상은	21,602	17,833	669	5,405	니이가타조신	27,777	2,469	92	1,365
아이치상은	20,118	13,962	530	6,649	가나가와조신	24,058	21,605	493	8,298
히로시마상은	14,301	11,469	366	7,003	조은야마구치	17,817	15,881	438	5,864
후쿠오카상은	12,597	9,847	363	5,408	후쿠오카조신	17,650	15,460	451	7,722
야마구치상은	10,310	7,865	301	4,689	치바조신	17,237	14,275	358	4,980
오카야마조신	8,505	7,042	229	4,866	사이타마조신	12,286	11,210	304	4,583
미에상은	7,601	5,874	256	2,418	조은히로시마	11,923	10,362	337	7,176
나라상은	7,036	6,049	200	1,608	미에조신	10,375	8,295	284	4,062
사이타마상은	6,941	5,387	220	2,752	조은기후	8,204	6,202	207	3,300
오가야마상은	6,926	5,930	147	2,928	시가조신	8,158	6,472	300	2,021
와카야마상은	6,801	6,145	204	2,240	시즈오카조신	7,205	6,028	162	3,517
치바상은	4,505	3,285	222	1,532	조은후쿠시마	4,735	3,774	118	3,246
시가상은	4,459	4,064	188	1,811	나가노조신	4,655	4,024	168	2,371
구마모토상은	3,928	3,081	82	2,459	홋카이도조신	4,357	4,339	148	2,223
시즈오카상은	3,773	3,264	158	1,319	이와테조신	4,028	3,135	112	1,305
홋카이도상은	3,153	2,494	116	1,445	조은이바라키	3,688	2,878	93	2,444
기후상은	2,973	2,524	113	2,044	후쿠이조신	3,543	2,964	81	1,976
니이가타상은	2,930	2,301	84	1,049	와카야마조신	3,465	3,118	109	1,801
후쿠이상은	2,740	2,176	92	1,156	나라조신	3,313	2,697	101	1,387
미야기상은	2,558	1,877	102	1,397	조은군마	2,725	2,195	70	1,297
나가사키상은	2,288	1,756	95	1,383	도치기조신	2,707	2,460	86	1,114
아모리상은	1,922	1,168	105	895	미야기조신	2,569	2,117	98	681
이와테상은	1,864	1,523	76	937	조은에히메	2,131	1,995	83	594
나가노상은	1,864	1,639	121	1,119	오이타조신	2,029	1,716	97	1,773

이바라키상은	1,804	1,252	106	717	아오모리조선	1,536	910	103	559
이시카와상은	1,738	1,104	69	813	도야마조선	1,494	1,238	59	798
군마상은	1,607	1,025	91	637	이시카와조선	1,361	1,092	71	879
도치기상은	1,319	708	92	558	조은아키타	1,218	914	36	663
사가상은	1,285	957	71	591	사가조선	903	363	50	564
오이타상은	1,184	819	100	607	나가사키조선	664	474	34	478
고치상은	880	647	94	528	35개				
도야마상은	787	707	58	473					
아키타상은	731	558	41	433					
시마네상은	606	431	59	526					
39개									

1996년에 총련계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은 2조 5천억 엔을 돌파했다. 총수신고로 비교하자면 이 시기가 총련계 금융기관의 전성기였으나 1997년 이후, 총련계 금융기관을 둘러싼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1997년 5월 교토 부, 효고 현, 시가 현, 와카야마 현, 나라 현 등 5개 조선은행이 조선은행끼리와 합병하여 경영난에 빠진 조선은행오사카의 사업을 조선은행끼리에 양도하도록 대장성(현재 재무성)과 오사카 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행오사카의 예금총액은 약 4천억 엔으로 당시 조선은행신용조합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버블경기 붕괴 후 대량의 불량채권이 발생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조선은행은 경영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표 5> 조선은행 창립, 지점설치, 점포수(1952년~1991년 3월 기준)

창립연도	조합신설 현	지점신설	점포 수
1952. 9	도쿄, 효고	0	2
1953. 3	가나가와	1	4
1954. 3	이바라키, 후쿠오카, 아이치, 교토	3	10
1955. 3	기후	4	15
1956. 3	후쿠시마, 오사카	4	21
1957. 3	-	4	25
1958. 3	-	3	28

1959. 3	사이타마, 오이타	0	30
1960. 3	-	2	32
1961. 3	미에, 아키타, 치바	3	38
1962. 3	야마구치, 히로시마	6	46
1963. 3	오카야마	3	50
1964. 3	나가노, 후쿠이, 와카야마, 군마	4	58
1965. 3	시가, 니가타, 나라, 도쓰기	3	65
1966. 3	홋카이도, 미야기	7	74
1967. 3	-	9	83
1968. 3	-	11	94
1969. 3	아오모리, 이와테, 이시카와	6	103
1970. 3	아키타	5	108
1971. 3	도야마, 시마네	4	114
1972. 3	-	1	115
1973. 3	에히메	3	119
1974. 3	-	4	123
1975. 3	-	7	130
1976. 3	-	5	135
1977. 3	-	3	138
1978. 3	나가사키, 사가	2	142
1979. 3	-	5	147
1980. 3	-	5	152
1981. 3	-	6	158
1982. 3	-	3	161
1983. 3	-	1	162
1984. 3	카가와	6	169
1985. 3	-	5	174
1986. 3	-	(-1)	173
1987. 3	-	2(-2)	173
1988. 3	-	2	175
1989. 3	-	0	175
1990. 3	-	1(-2)	174
1991. 3	-	4	178
총계 38개 지역			178

<표 5>은 총련 조선은행의 일본 지역별 지점설립과 점포수를 정리한 것이다(吳圭祥 1992). 일본사회에서 제일 총련의 발전모체는 상공단체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1952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공단체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총련 사회의 수요에 의해 조선은행은 1952년 창립이후 일관되게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지점신설이나 점포수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민단계 상은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 총 39개 지점이 일본전국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경영파탄이나 합병으로 8개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긴키신용조합이 2004년 한신협분담금 등을 이유로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로부터 탈퇴하였다. 총련계 조은의 경우 1991년 시점에서 일본 전국 총 38개 지점, 178개 점포가 존립했지만 2000년대 이후 경영파탄이나 합병으로 7개의 신용조합이 생존하고 있다. 이들 중 조은신용조합에 뿌리를 두고 현존하는 조은은 우리신용조합, 이어신용조합, 조은니시신용조합이다. 여기에다 경영파탄 된 조은과의 합병으로 설립한 조합에 일본인 임원을 수용한 조합으로는 미래신용조합, 하나신용조합, 케이지신용조합, 효고히마와리신용조합 등이다.¹⁹⁾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표 6>은 전체적으로 민단 상업은행과 총련 조선은행의 양 조직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로 제시한 것이다. 양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연도를 살펴보면 총련계 조선은행이 민족금융기관설립에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민단계 상업은행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족은행 설립자금의 모태는 총련계 조은은 북한의 교육지원금, 민단계 상은은 한국 정부 지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현황에서 지점 수나 총출자금은 비슷하지만, 신용조합의 총수신고, 총대출금, 조합원 수는 총련계 신용조합이 민단계 신용조합보다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양 조직의 투자처를 살펴보면 총련계 신용조합은 나중에 북한기업과의 합병기업으로 민단계 신용조합은 '한신협'에 이은 한국 내 신한은행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

민족금융기관의 조직문화의 차이를 보면 총련계 신용조합은 재일동포의 생활권 및 기업권확립 운동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특수성을 보이는 반면, 민단계 신용조합은 조합원간 상호부조와 도전정신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민단신문: <http://ja.wikipedia.org/wiki>. (2013년 5월 21일 검색)

<표 6> 양 조직의 비교(단위: 1만 엔)20)

비교대상	민단계 상업은행	총련계 조선은행
창업연도	1953년 도쿄 한성신용조합 발족을 계기로 제일한국인신용조합설립 개시, 1956년 제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가 발족하면서 상업은행 설립 증가, 1953년~1982년에 집중 설립	1949년 1월 도쿄 상공인에 의해 '도쿄조선인상공신용조합'설립발기인대회 발족, 1952년부터 인가받아 창립 시작, 1955년~1983년에 집중 설립
설립자금 출처	1960년대 '한신협(제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 중심 제일중소기업육성자금, 한국정부 50만 달러 송금	1957년 북한의 총련에 대한 교육 지원금 32억 엔 송금, 설립자금
금융기관 현황	1955년 신용조합설립 1977년 제일투자금융 설립 1981년 4월 한신협(제일한국인신용협동조합) 청원서 제출 1982년 7월 7일 신한은행 창립	1952년 창립 이후 1991년 3월 38개 조합 178개 점포 1997년 합병과 재편성 2002년 7개 조합의 합병 금강보험-1977년 4월 18일 설립
지점 수	39개 현재 아스카, 중앙상은, 아스나로, 신용조합 아이치상은, 긴끼산업신용조합, 신용조합 오카야마상은, 신용조합 히로시마상은, 큐슈행은 신용조합 등 8개 존립	38개 현재 우리신용조합, 이어 신용조합, 조은니시신용조합, 미래신용조합, 하나신용조합, 케이지신용조합 효고 히마와리 신용조합 등 7개 존립
지역별 인구비율	오사카, 도쿄, 효고, 아이치, 교토 등 제일코리아인 집거지역 인구 비례 순	오사카, 도쿄, 효고, 아이치, 교토 등 제일코리아인 집거지역 인구 비례 순
총수신고	488,493 엔	507,290 엔
총대출금	395,308 엔	417,807 엔
총출자금	12,223 엔	10,549 엔
조합원수	147,181 명	170,390 명
설립자 및 설립배경	이희건-이승재-신상훈 등 제일코리아인 기업가 개인 중심 민단의 조직적인 활동과 상호 경쟁	1949년 1월 도쿄 상공인에 의해 '도쿄조선인상공 신용조합'설립 발기인대회 발족(발기인 최송원 외 20명) 총련의 조직적인 활동 상호 경쟁
조직문화와 경영이념	상호부조를 기본이념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나 개인금융서비스. 주인의식 (Ownership Mind), 도전정신 (Challenge Mind), 팀워크(Team Work)	제일조선상공인 생활권 및 기업권 확립 운동, 동포생활과 애국운동발전에 기여

20) 표는 논문작성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한 것임.

주요투자처	1982년 재일코리안 투자가 341명의 모금액 25억 원으로 신한은행설립 한국투자	198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이 실시되면서 합병기업으로 북한투자
상속문제	한국법 적용(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한국의 국제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본법으로 상속 추진 가능)	일본법 적용(북한 대외민사관계법에 의거 재외국민에게는 현지국의 민법 적용 원칙)
경제활동 기여 및 공헌	정치적 배경과 지지 세력에 의한 재일코리안 민족경제 조직기반구축	민족에 기반을 둔 두 종류의 재일코리안 민족은행 설립

V. 결론 및 시사점

1950년대 초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재일코리안 금융기관은 일본에서 민단계와 총련계의 분열에 의해 영세적인 자영업수준의 신용조합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설립 배경에는 민단계와 총련의 조직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재일코리안 민족은행의 설립은 종전부터 축적된 사회적 자본인 민족네트워크를 통한 재일동포 간 공유된 정보전파에 의해 전국적인 전개활동이 가능했다.

재일코리안 공동체 내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정보전파를 통한 민족은행의 확대와 신규산업 전환, 사양산업으로부터의 탈출 등 사회적 기능을 담당했다고 추정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기 전까지 남북대립이라는 한반도정세의 영향은 민족은행 설립에 대한 영향이 미미했지만 민족은행 설립은 점차 상이한 지지세력이나 남북한정부의 지원에 의해 각각 상이한 구조로 설립되어 갔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민단계와 총련의 대립은 정치적 배경과 지지세력에 의한 경제 조직기반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민단계와 총련의 정치적 대립은 일본사회에서 지지기반에 따른 두 종류의 민족은행 설립을 야기했지만 민족에 기반을 둔 경제조직으로서 자금수요의 한계, 지역에 따른 규모의 격차가 큰 민족은행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민단계와 총련계의 대립과 경쟁관계는 금융기관의 성장발

전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민족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영세적인 자영업 수준의 금융기관이 난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족차별에 의한 일본금융기관의 대출제한으로 자영업수준의 재일코리아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민족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민족금융기관은 일본 내 반복분위기의 확산에 따른 일본사회의 우경화, 글로벌 외환위기와 경제 불황, 민족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배임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경영과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영향으로 재일코리아 금융업은 민단계의 경우 일본금융업계와의 합작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총련계는 강한 민족연대를 기반으로 신용조합이 당분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3지대의 은행설립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기업의 통폐합에 따라 재일코리아 금융기관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민족 금융기관의 통폐합, 범위의 경제에 따른 보험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재편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2005). 『총련: 총련결성 5돐에 즈음하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 Ahn, Hyeon-Hyo and Yun-Sun Chung(2006).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s: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 Ahn, Hyeon-Hyo and Jang Pyo Hong(1999).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University California.
- Waldinger, Roger(1989). “Immigrant enterprise: A Critique and Reformulation.” *Theory and Society*. Vol. 15. No. 2.
- 金元祚(1984). 『凍土の共和國：北朝鮮幻滅紀行』. 亞紀書房.
-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 李英和(1994). 『北朝鮮秘密集會の夜：留學生が明かす“素顔”の祖國』. クレスト社.
- 閔寬植(1994).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金敬得·金容權 譯.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 永野慎一郎(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雄山閣出版.
- 河明生(1996). “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活動: 在日一世朝鮮人の事例分析.” 『經營史學』. 第三〇卷. 第四号.
- 韓載香(2007). “民族金融機關の全國展開.” 東京大學21世紀COEものづくり經營研究センター.
- 韓載香(2010). 『「在日企業」の産業經濟史：その社會的基盤と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學出版會.
- 『日本經濟新聞』. 1983年 8月 25日.
- 『日本經濟新聞』. 1989年 1月 9日.
- 『日本經濟新聞』. 1989年 8月 30日.

『日本經濟新聞』. 1991年 7月 23日.

『日本經濟新聞』. 1993年 2月 24日.

『日經金融新聞』. 1993年 7月 5日.

『日本經濟新聞』. 1997年 5月 14日.

『日本經濟新聞』. 2001年 11月 8日.

『日本經濟新聞』. 2001年 12月 6日.

『日本經濟新聞』. 2007年 6月 18日.

『日本經濟新聞』. 2011年 3月 3日.

『日本經濟新聞』. 2011年 8月 25日.

『日經金融新聞』. 2005年 4月 19日.

NORTH KOREA TODAY. http://www.pyongyangology.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26&Itemid=81. (2013년 4월 15일 검색)

朝鮮新報.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4/01/0401j0226-00001.htm>. (2013년 4월 16일 검색)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9998>. (2013년 4월 18일 검색)

朝鮮新報. <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10003>. (2013년 4월 20일 검색)

朝鮮新報 홈페이지(<http://jp.korea-np.co.jp/article.php?action=detail&pid=10115>). (2013년 4월 25일 검색)

民団新聞. http://www.mindan.org/shinbun/news_view.php?category=1&page=69. (2013년 5월 1일 검색)

在日本大韓民國民団. <http://www.mindan.org/front/newsDetail.php?category=1&newsid=12222>. (2013년 5월 16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2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07월 16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2 (2013)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Japanese-Korean Banking Groups:
Laying Emphasis upon Comparison between *Mindan* and
Chongryon Societies**

Young-Eon Yim

(Overseas Korean Business & Culture, CNU)

Soug-Shin Choi

(Dept, of Global Management, CNU)

This article is to analyse and to compare the two profit banking organizations paying attention t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which had occurred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growth processes of Japanese-Korean ethnic banks in Japan. So to speak, we not only identify the two groups' various characteristics but to propose some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themes as well.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s began to deploy from early 1950's and expanded to nation-wide Japan during 1960's. They have been established at almost every Japanese prefectures till the early 1980's. Among the total 77 ethnic banking firms (actually they all are banking cooperatives.) in whole Japan, 39 firms belonged to the *Mindan* group and 38 firms belonged to the *Chongryon* group.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ethnic banking groups have been based upon confrontation moo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gionally speaking, Southern group (or *Mindan* group) have been established around the downtowns of big cities such as Tokyo,

Osaka, Kobe, Kyoto little earlier than the *Chongryon* group. *Mindan* group have emphasized business size and profitability, while *Chongryon* group have stressed ethnic networks or solidarity rather than profitability.

Third, competitiv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groups have ethnic banking firms facilitate growth and development. The Japanese-Korean businessmen have long faced severe ethnic segregation in the local Japanese society.

In conclusion, they couldn't evade bankruptcy owing to social economic depressions such as severe Japanese chauvinism, anti-North Korea moods, global currency crisis and management moral hazard and so on. *Mindan* group would prefer M&A with the Japanese banking groups. *Chongryon* group would survive alone for the time being on the basis of strong ethnic networks. The two groups may pursue new establishment in the third countries just as Korean ethnic firms do in South east Asia.

Key words: Japanese-Korean, Ethnic Bank, Mindan, Chongryon, Ethnic Firms